

공동체 소식



6월, 예수 성심 성월

예수 성심께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본당과 캔사스 전체를 봉헌합시다!!

예비자 인도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예수 성심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6월 기도지향

- 김창만(그레고리오), 이대숙(사비나)
김선영(아녜스) 가정
- 김정환(요 한), 윤유나(글라라)
김민정, 김성태 가정

오늘은 “연중 제11주일” 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기에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의외성을 지닙니다. 특히 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선하심은 작은 씨앗을 키워 인간을 살게 해주심은 물론이고, 이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서 하느님 나라 건설의 기틀을 마련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실현되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굳은 신뢰와 희망일 것입니다.

오늘 “병자 영성체” 가 있습니다.

오늘 미사 후에 병자영성체가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구역장님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6월 17일(주일) 오후

오늘 “구역장 모임” 이 있습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6월 17일(주일) 점심식사 후

2012년 캔사스 한인성당 “감사와 치유의 밤”

6월 예수성심 성월을 맞이하여 캔사스 한인성당 “감사와 치유의 밤” 을 준비하였습니다. 풍성한 감사와 은혜로운 치유의 이뤄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제 : “나는 하느님의 희망이 되고 싶다.”
- 일 시 : 6월 19(화) - 20일(수) 저녁 8시
- 강 사 : 정건석 프랜시스 신부
(어스틴 성 김대건 성당 주임신부 및 미중남부 성령봉사회 지도신부)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99	210	178, 155	209

주일미사 복사

	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06/17)	안광민(야 고 버)	차호섭(요 셉)
	안광희(크리스토퍼)	차서은(세라피나)
다음주일 (06/24)	정수한(베 드 로)	이우영(가브리엘)
	정예찬(미 카 엘)	이원준(요 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06/17)	김명은(안 젤 라)	김태중(예레미야)
	김수연(율리안나)	김시연(엘리사벳)
다음주일 (06/24)	김수연(율리안나)	고영방(스테파노)
	최은미(아 네 스)	김명은(안 젤 라)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06/17)	신혜경 마리아 , 박혜정 가타리나, 유경애 아녜스
다음주일(06/24)	황의정 율리안나 , 최선윤 마리아, 정연숙 막달레나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다음주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6월 3일>
- 미사참례 : 82명
 - 주일헌금 : \$318
 - 교 무 금 : \$49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평 일 : 수 목 금 10:00 AM
 화 8:00 P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거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무척 작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면서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화해설

천호
전주교구,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소재.

천호 마을은 1839년 기해박해를 전후해 형성된 유서 깊은 교우촌으로 1866년 병인박해 때 전주 숲정사에서 순교한 여섯 성인 중 이명서, 손선지, 정문호, 한재권과 같은 해 공주에서 순교한 김영오, 1868년 여산에서 순교한 열 명의 무명 순교자들이 묻혀 있는 곳이다. 그 밖에도 1868년 여산에서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이 이곳 천호산에 종적을 감춘 채 묻혀 있다. 작은 거자씨처럼 뿌려진 순교자들의 피는 더없이 큰 열매를 맺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에제 17,22-24 < 낮은 나무는 높이리라. >

화 답 송 :

주 님 당 신 을 기 려 높 임 이 좋 으 니 이 다.

- 좋으니이다 지존하신 임이시여 주님을 기려 높임이 그 이름 노래함이 좋으니이다. 아침에는 당신의 사랑 밤이면 당신의 진실을 알림이 좋으니이다. ◎
- 의인은 팔마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체드루스처럼 자라나리니 주님의 집안에 심어진 그들은 하느님의 뜰에서 꽃피리이다. ◎
- 늙어서도 그들은 열매를 맺으며 진기 있고 싱싱하오리니 그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바르심을 저의 바위 당신께서는 하자 없으심을 널리 알리리이다. ◎

제 2 독서 : 2코린 5,6-10 <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 마르 4,26-34 <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으나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 >

말씀의 이삭

“작은 것, 작은 사람을 소중하게”



‘작은 것’ 을 아름답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 한 마음은 가장 보잘 것 없는 작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큰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모여서 하느님 나라의 작은 씨앗이 자라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물론 자격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했고 면접에 많은 사람이 응했습니다. 면접은 사장이 직접 맡아 하였습니다. 한 어린 아가씨가 사장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가 원하는 나이에는 맞지도 않을뿐더러 자격 조건에도 미달이군요. 죄송합니다.” 그 어린 아가씨는 무척 실망한 표정을 짓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지만 사장은 그 소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소녀는 무척 실망하여 돌아 나오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편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주어 옷자락에 낚아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소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장은 그 소녀를 다시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자격조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조그마한 편 하나까지 아끼는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젊은 아가씨의 마음과 사장의 마음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건데 그 회사는 분명히 성공했을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성장하는 비결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느님께서 작은 편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소녀와 같은 사람을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 뽑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격조건이 미달이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것’ 과 ‘작은 사람’ 을 소홀히 여기고, ‘큰 것’ 과 ‘큰 사람’ 만을 선호하는 시대에 그리고 ‘첫째’ 이기를 바라고 ‘최고’ 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줄 아는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작은 사람, 풀씨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함께 나누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생각이 깊은 나무가 말했습니다.
두려워 할 것 없다.
우리가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헤칠 수가 없다.”
신영복 교수의 “나무야 나무야” 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아무리 유혹이 넘치는 세상이라고 해도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맨 처음에 여러 생명들이 만들어졌을 때
하느님은 동물들에게 각각 몸에 맞는 것들을
웃으로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새에게는 빨리 날 수 있는 날개를,

어떤 짐승에게는 싸울 때 힘을 쓰게 하는 뿔을,
그리고 모든 짐승에게 주위에 떨지 않도록 깃과 털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만은 깃도 털도 날개도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시무룩해있는 사람을 향해 하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운해하지 말라.
너희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을 주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들어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성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나무가 도끼 자루가 되어 신앙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넘어지는지 생각해봅시다.

Father's Day

남편을 살리는 말 37가지!

1. 여보, 사랑해요, 2. 여보, 아이가 당신 닮아서 저렇게 똑똑한가 봐요,
3. 내가 결혼하나는 잘 했지, 4. 내가 복 받은 여자지,
5.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6.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지요?
7.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8. 내가 시어머니 복은 있나 봐요,
9. 여보, 작전 타임 아시지요? 10. 당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11. 다리 쪽 뻗고 낮잠이라도 푹 주무세요, 12. 이제는 쉴 때도 되었어요,
13.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14. 여보, 당신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거 아시지요?
15. 이제, 제가 나서 볼게요, 16. 여보, 여기 보약을 한 재 지어 두었어요,
17. 당신만 믿어요, 18. 건강도 생각하세요, 19. 당신 없이 난 하루도 못살거야,
20. 여보, 고마워요, 21.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요,
22. 세상에 당신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23. 당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24.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25. 역시 수준 있네요,
26.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27. 당신은 하느님 다음이에요,
28.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요, 29. 당신위해 이렇게 꾸몄는데 나 예쁘죠?
30. 당신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해요, 31. 여보, 나보다 먼저 가면 안돼요,
32. 당신은 타고 난 인격자예요, 33.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34. 당신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35. 여보, 내가 당신 극성팬인 것 모르지요?
36.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37. 당신은 남 달라요,



시로 달아주는 세련